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이혜* | 학번 |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밴쿠버 |
| 파견대학 | Langara College | 기간 | 2017. 1. 15(일) ~ 2. 5(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대학교 안에 카페(팀 홀튼, 스타벅스), 작은 규모의 식당들이 있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학교 시설은 깔끔한 편이고 규모가 작지는 않은 편입니다.</p> <p>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p> <p>학교 근처에 지하철 역, 버스가 있어서 수업을 마치고 다운타운으로 가는 게 쉬웠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큰 몰(오크리지 몰)이 있어서 자주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p> |
| 수업 | <p>수업은 문화, 이메일 작성, 제스처, 캐나다의 역사 등에 대해서 배우며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교재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15명이 다 같이 수업을 들었으며 교수님은 한 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흥미로웠지만 역사, 이메일 작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였습니다.</p> <p>과제는 많지는 않지만 홈스테이 가족 인터뷰 2번,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 2번 등이 따로 집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박물관,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를 갈 때 팀 활동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종이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정보 등을 적어서 다음 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수업을 할 때에도 팀별로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할 때가 많은 편입니다.</p> <p>수업 시간 이외에도 밴쿠버에 대해서 궁금한 점 (팁 문화,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 들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편입니다.</p> |
| Activity | <p>밴쿠버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 스노우슈잉, 컬링 등이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인데 별도의 비용은 내지 않았습니다.</p> <p>스노우슈잉, 컬링을 할 때에는 목도리, 장갑이 필수이며 특히 스노우 슈</p> |

| | |
|--|---|
| | <p>잉을 할 때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신발과 양말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을 준비해서 Activity가 끝난 뒤 바꾸어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밴쿠버 겨울은 눈, 비가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코트 보다는 방수가 잘 되는 옷 (패딩 등)이 편리하며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목도리, 장갑을 들고 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비가 온 다음날도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넘어지지 않는 신발을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p> |
| 안전 | <p>전체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주택가를 걸을 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p> <p>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홈리스들이 많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돈을 요구하거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조금 거리를 두고 걸으면 안전합니다.</p> |
| 숙소 |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0)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 분위기, 규칙 등은 집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초반 설문조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 있는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등)</p> <p>저는 집에서 특별한 규칙이 없는 편이었고 홈스테이 가정에 할머니만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취침 시간이 빠르고 샤워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p> <p>홈스테이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은 정중히 홈스테이 집에 요청하면 대부분 해결해주시기 때문에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홈스테이 오피스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편안하게 말을 해도 됩니다.</p> |

| | |
|----|--|
| 식사 |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0)기타()</p> <p>아침은 주로 홈스테이 집에서 간단히 토스트, 과일 등을 먹고 등교를 했습니다. 점심은 샌드위치, 전 날 저녁을 싸주셨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샌드위치를 선호하지 않아서 정중히 다른 종류의 음식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녁은 3번-4번을 제외하고는 친구들과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져간 용돈의 대부분을 외식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p> |
| 교통 | <p>대부분의 학생들이 버스, 스카이 트레인을 타고 등교를 하는데 첫 날 홈스테이 가족들이 학교로 가는 법, 집으로 오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이용하면 됩니다.</p> <p>캐나다는 스트리트 이름이 정류장의 이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에는 정류장을 이름을 잘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p> <p>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착되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날 등교를 할 때에는 조금 서둘러서 나오는 것이 좋으며 구글 지도를 통해 버스 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 약 1,200,000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유심칩 | 약 44,000원 | 현지 구입 (데이터1기가, Fido) |
| 외식 | 약 380,000 | 저녁 |
| 입장료 | 약 100,000 | 케이블카,캐필라노 등 |
| 쇼핑 | 약 250,000 | 옷, 아이스와인 등 |
| | | |
| 합계 | 약 780,000 | 항공료 제외 개인 용돈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1.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유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연락, 학교 지각 시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미리 구입해오거나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홈스테이 가족들께 드릴 편지나 간단한 선물을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자, 한국화장품 등) 간단하게 성의 표시를 할 정도의 선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 발표 시 피피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고 작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3주 동안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있다면 참지 말고 학교,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다들 불쾌해하거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문제 해결을 해줍니다.
5. 학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야외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감기에 약한 학생이라면 감기약을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캐나다는 각 가정마다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샤워 시간이 평균 10-15분 정도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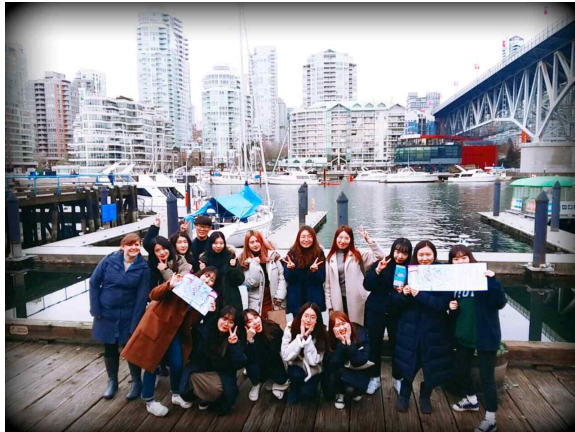
3주라는 시간이 영어를 배우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직접 캐나다 가정에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밴쿠버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어, 문화 등 교육적인 면에서도 배울 점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함께 간 14명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학과, 다른 학년이지만 3주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많이 가까워 졌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함께 간 학생들 뿐 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만 한다면 교수님, 홈스테이오피스 직원들, 랑가라 학생들 등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게 된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아니라 직접 캐나다 가정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3주 동안 좋은 홈스테이 가정을 만나서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다 왔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방문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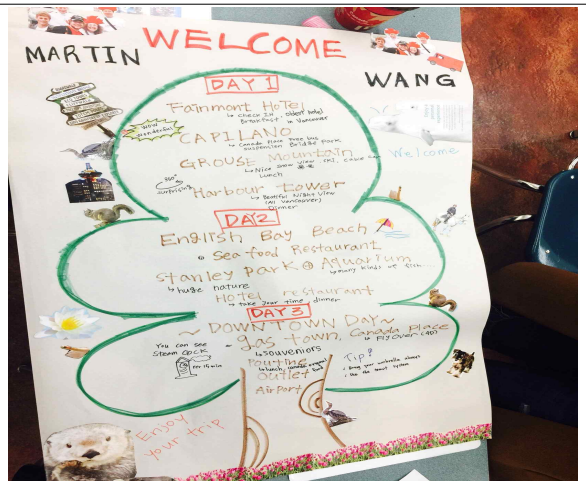
그랜빌 아일랜드



카필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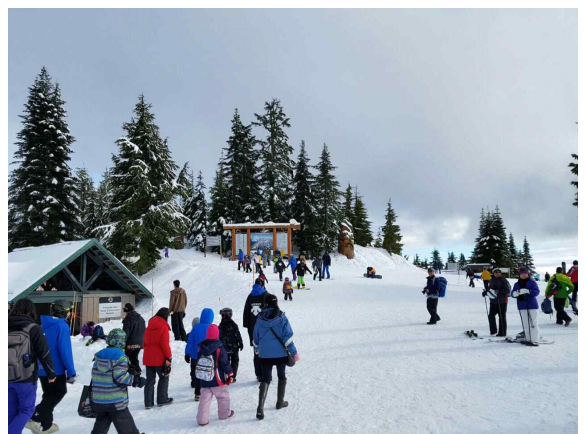
컬링



팀 활동



벤쿠버 뮤지엄



그라우스 마운틴